한미FTA 의혹 해명·후속 대책 촉구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

"정부 의존만 높이는 농촌지원 탈피해야"

"사전 신고 없는 대북접촉 심각한 문제"

국회는 9일 정치·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열어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 및 정부 홍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이면합의 여부와 후속대책, 노무현 대통령 측근 안희정 씨의 비밀 대북접촉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우선, 현안인 한미 FTA 문제를 둘러싸고 열린우리당과 통합신당모임 등 범여권 소속 의원들은 확연한 시각 차이를 드러내며 논쟁을 벌인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한미 FTA에 대해서는 거의 의견을 피력하지 않아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강봉균 통합신당모임 의원은 "한미 FTA는 저임금으로 추격해오는 중국과 고기술로 앞서가는 일본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된 한국경제를 살려낼 수 있는 기회"라고 주장한 뒤, "특히 정부에 대한 의존심리만 높여온 지금까지의 농촌 지원대책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FTA 비판론자인 최성 열린우리당 의원은 "한미 FTA의 국회 비준동의를 위해서는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구두 약속 유무, 교육시장 개방 등 4대 의혹이 해소돼야 한다"면서 "국회 청문회, 국정조사,국민여론조사 등 3단계로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촌 피해 보완대책으로 농어촌 학생들의 대학 특별전형을 확대하고 등록금 무이자 융자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는 "농어촌에 대해 확실하게 소득을 보전하고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도 병행하겠다"며 "이번에 나온 새로운 협상 결과에 따라 전면적 재평가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 문제를 둘러싸고는 한나라당 의원들과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충돌했다.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는 개헌홍보를 이유로 개헌홍보지 1백만부 배부 등 탈법적 사전 투표운동을 벌려 왔다"며 관련 공무원의 처벌을 촉구하는 한편"노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17대 대통령 선거의 공정한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정청래 열린우리당 의원은 개헌에 찬성했던 한나라당 대선주자들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게 개정한다면 국정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안희정씨의 대북접촉과 관련, 정문헌 한나라당 의원은 "대북정책의 투명성을 강조했던 정부가 공식 직함도 없는 사조직을 동원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으며 같은 당 김희정 의원은 "안씨 등이 사전신고 없이 북한과 접촉한 것에 대해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며 위법행위를 옹호했다"고 비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본회의 방청하는 중국청년연맹대표단 한국청소년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한중 미래숲 행사에 참가한 중국청년연맹대표단이 9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방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FTA시대

위기의 전남농업 ❻ 소득보전 대책, 현실성 떨어진다

직불제는 단기처방 일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이후 정부는 쇠고기와 콩, 감귤 등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소득보전 직불제를 실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피해를 입은 농산물 재배농가에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형태의 '소득보전 직불제'는 단기적인 처방은 될 수 있을지라도 농업과 농촌을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는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기존 농가의 피해를 지속적이고, 실질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한미FTA를 반대하는 의원들이 9일 국회에서 열린 한미 FTA에 대한 평가와 향후 대책토론회에서 정부의 협상 문제점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쟁력 확보 도움 안돼

9일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한미 FTA로 인해 수입이 급증, 결과적으로 값이 급락하는 피해가 발생할 경우 품목별로 소득 감소분에 대해 직불금을 지급해 소득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농가 소득 보전은 피해 농가에 평년 가격과의 차이를 현금으로 보전해 주는 방식이 될 것으로 전남도는 전망했다. 특정 작물의 평년 시장가격이 kg당 10만 원이었는데, 한미 FTA로 수입이 급증해 시장가격이 5만 원으로 떨어졌다면 차액인 5만 원의 일정 비율에 대해 정부가 현금을 주는 방식이다.

한·칠레 FTA 타결 당시 정부가 키위와 시설포도에 대해 기준고시가격을 정하고, 이 가격에서 80% 이하로 값이 내리면 차액의 80%를 현금으로 보전해 줬던 전례를 감안하면, 이번 한미FTA에서도 이 같은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직불금 지급 대상은 현행 키위, 시설포도에서 쇠고기, 감귤, 콩 등 품목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농가와 전문가 등 관련 이해단체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 대상 품목과 지급 요건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경쟁력을 상실한 농가가 폐업을 할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대책을 제시했으며, 이를 위해 2004년 한·칠레 FTA 때 조성된 1조2천억 원 규모의 'FTA이행지원기금'을 더 확충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정부의 농가 소득보전 직불제가 '단기성, 언 발에 오줌누기식' 지원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FTA로 인해 이득을 보는 부문에서 재원을 마련한다고는 하지만, 가격 하락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피해액을 언제까지나 무한정 보전해 주기는 사실상 어려운데다, 그렇게 하는 것이 농가경쟁력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지도 의문이기 때문이다.

산업간 불균형 초래도

이와 함께 특정분야에 대한 소득보전 직불제가 결과적으로 산업간 불균형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시장 신규진입을 가로막는다는 점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조창완 연구위원은 "농가소득보전 직불제는 한미FTA로 직격탄을 맞는 농가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기 처방일 뿐"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지역 농업을 발전시키고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산업연구원 예측, 한미 FTA 누가 더 이익 보나

무역수지 美에 더 유리

제조업 年7억5천만달러 개선… 전체로는 손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양국간 무역, 특히 무역수지와 관련해서는 양국중 어느 나라가 더 유리할까.

아직 구체적 양허안을 토대로 한미 FTA가 양국간 교역에 미칠 영향에 대해 추정한 신빙성있는 자료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국이 제조업 분야에서 약간 유리할 수 있지만 농산물 등 여타 분야를 모두 포괄하면 적어도 무역수지라는 측면에서는 한국보다는 미국에 유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 KIET "제조업만 보면 연 7억5천만 달러 개선"=산업연구원(KIET)은 9일 서울 인터콘티넨털호텔에서 열린 한미 FTA 산업전략 보고대회에서 관세인하 효과만으로 대미 수출이 연평균 10억8천만 달러, 수입은 6억 달러 늘어나 대미 무역수지가 연평균 4억8천만 달러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생산성 향상 효과를 고려하면 수출과 수입 증가분이 각각 13억3천만 달러, 5억8천만 달러씩 늘어 대미 무역흑자는 연평균 7억5천만 달러씩 증가할 것이라는 게 KIET의 전망이다.

KIET는 자동차 분야의 무역흑자 확대폭이 7억4천100만 달러, 섬유와 전기·전자가 각각 1억6천만 달러와 2천2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KIEP·美ITC "무역수지 미국이 득"=하지만 제조업외에 전체 교역을 염두에 두고 계산한다면 적어도 무역수지는 미국에 유리하다는 분석이 더 우세한 편이다.

한미FTA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해 온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지난해 내놓은 '한미FTA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서 한미FTA로 단기(정태) 효과로나 자본축적을 고려한 동태적 장기효과로나 무역수지는 미측에 더 유리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대미 수출 증가율보다 수입 증가율이 2배 이상 빠르게 나타나면서 단기적으로는 대미 무역수지가 42억 달러, 중장기적으로는 51억 달러 줄어들 것이라는 게 KIEP의 추정이다. /연합뉴스

이혜민 FTA기획단장 "美 소갈비까지도 수입검토 대상"

이혜민 외교통상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기획단장은 9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와 관련,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을 광우병 위험통제국가로 확정하면 갈비까지 수입검토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장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잇따라 출연, "OIE 기준으로 (광우병 위험통제국가에 대해서는) 특정위험물질(SRM)을 빼고는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그는 "그러나 OIE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는 있다"며 "OIE 등급 결정뒤에도 국내 자체적인 위험평가절차를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일정 수량까지 배출가스 기준을 완화 적용하기로 한 배경과 관련해서는 "미국 내에서는 높은 수준인 캘리포니아 기준이 적용된다"며 "(자동차 분야의) 스냅백이나 신속분쟁해결절차는 협정을 분명히 지키겠다는 의사표시로 도입에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제주도 현지여행사
(주)제주무궁화관광
◀제주도 현지여행사가 소비자에게 중간마진을 돌려 드립니다▶
◆제주도 제주시 연동 1372 신성빌딩 1층
◆등록번호 616-81-11280
주소창에서 제주무궁화관광 을 쳐보세요!
뜨아아~ 목포출발, 녹동(고흥)출발
<여행자보험 무료가입서비스>
제주도 여행 2박3일 78,000원
가족끼리, 친목, 계모임… 모두들 환영합니다. 1일 한라산등반+1일관광도 가능합니다. (₩88,000원)
분재예술원, 일출랜드, 승마체험 등 다양한 체험관광을 해보세요 ~
목포 출발 "목카투어" 78,000원
★일정- • 1일째 : 목포국제여객터미널 (09시 30분 또는 15시)출발-호텔1박
• 2일째 : 제주관광 또는 한라산등반 -호텔1박
• 3일째 : 제주관광-제주항(17:30)출발 (단, 일요일은 16:30출발)
★출발일 : 매일출발(단, 토요일은 제외) -토요출발은 1박2일이나 3박4일 일정만 가능
★포함내역 : 왕복선박, 숙박2박, 조식2회, 중식2회 석식2회, 차량료, 입장료, 주차료
고흥(녹동)출발 "녹동투어" 78,000원
★일정- • 1일째 : 녹동 남해고속터미널(10시) 출발 -호텔1박
• 2일째 : 제주관광 또는 한라산 등반 -호텔1박
• 3일째 : 제주관광-제주항(18:00)출발
★출발일 : 매일출발(단, 금요일과 일요일은 제외) -금요출발은 1박2일이나 3박4일 일정만 가능
★포함내역 : 왕복선박, 숙박2박, 조식2회, 석식2회, 차량료, 입장료, 주차료
광주 출발 "2박3일" 항공+항공투어
159,000원(주중+주중)
169,000원(주중+주말)
★ 렌트카 파격할인 ★
전차종 75% 할인
※네비게이션 포함
[1박2일 크루즈투어] 68,000원 (한라산등반 또는 1일 제주관광)
[3박4일 크루즈투어] 108,000원 (한라산등반+2일 제주관광)
[2박 3일 크루즈+항공투어] 119,000원(주중) / 139,000원(주말)
2박3일 항공골프투어 369,000원
일요일 출발 기준(광주 12시10분 출발, 제주 14시40분 출발)
★포함내역 : 왕복항공, 관광호텔 2박, 조식 2회, 그린피 2회(36홀), 셔틀차량 2일
1박2일 항공 골프투어 379,000원
월·화·수 출발 기준(광주 오전 출발, 제주 오후 출발)
★포함내역 : 왕복항공, 관광호텔 1박, 조식 1회, 그린피 2회(36홀), 셔틀차량 2일
오픈기념 : 해저탐험 잠수함관광을 원할시 ~~49,500~~ → 30,000원
(단, 미리 사전예약에 한합니다. 당일 예약시 정상요금 적용)
조흥은행 708-01-074067 제주무궁화관광
문의 : ☎064-744-1109 www.jejumt.net (주)제주무궁화관광 • 협찬 : 씨월드고속훼리

기품과 중후함으로 완성되는 앤틱의 명품— 4월13일 OPEN!
모디쉬갤러리 광주직영전시장
두암동 홈플러스 맞은편 200평규모 초대형 전시장 기대하십시요!

취급품목 황토쉘흙침대, 장수온돌침대, 커텐, 침장 등
www.modishgallery.co.kr
모디쉬갤러리 광주전시장 ☎(062)252-3001~2 / 금호월드 7층 ☎(062)350-8764